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⑨ 태자의 부인 맞이 겨루기



▶ 한줄요약
이상형 '구이'를 배필로 맞이하기 위해 열린 대회에서 싯달타 태자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석가족 왕족과 귀족들을 누르고 승리했다. 그리고 구이를 아내로 맞이했다.

싯달타 태자, 압도적 기량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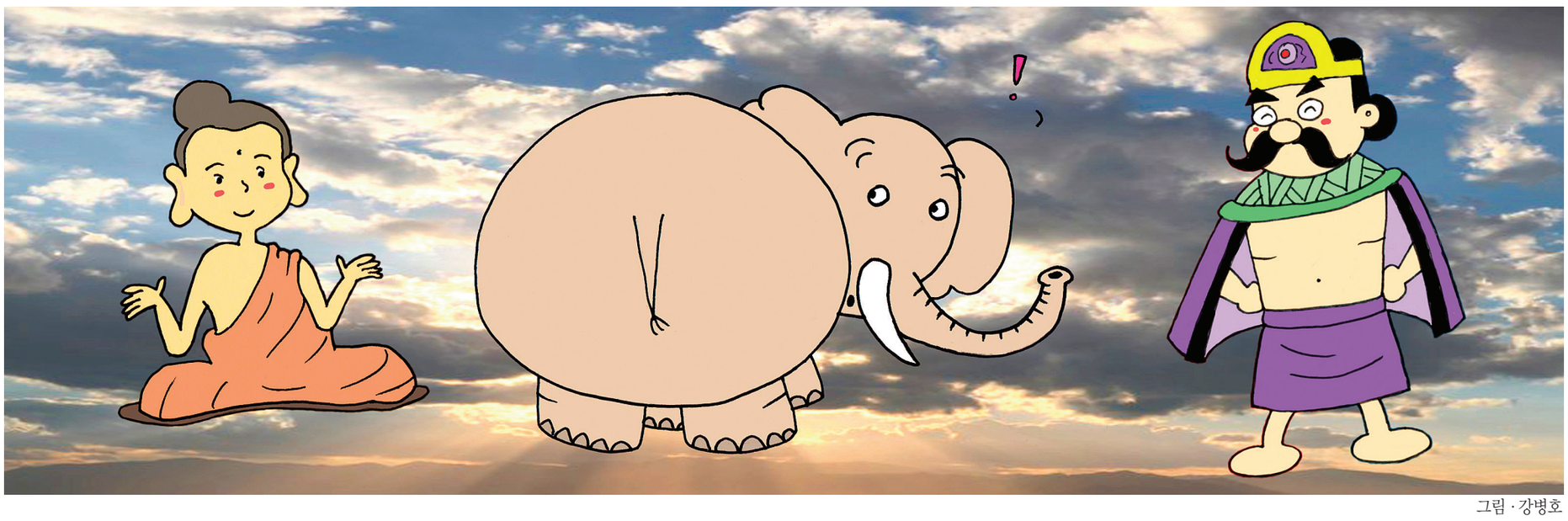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꼽으라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묘사되는 겨루기 시합을 하는 대결 구도이다. 권6에서 '사리불'이 외도 '노도차'를 불교로 귀의시키는 대결이 그렇고 권3은 지금 석가 왕족과 귀족들의 대결이 그렇다. 그것도 꽃다운 청춘남녀의 '평생 배우자 구하기'라는 어찌 보면 인생 일기일회를 맞이하는 순간이다. 빼어난 석가족 청년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모습들을 그 시대 그들의 이상형 '구이'의 관점에서 관전해 보자.

코끼리 던지기 시합과 씨름

조달이 말하였다.

"태자가 총명하여 글은 잘 하거니와 힘이야 어찌 우리를 이기리오."

하고 코끼리가 문에 서 있거늘 조달은 그 코끼리의 머리를 잡아 땅에 굴러 던지고, 난타는 코끼리를 길가에 올려 찼다. 태자는 코끼리를 들어 성너머로 내던지고 따라 날아가서 받아 아프지 않게 내려 놓으셨다.

조달이와 난타가 서로 씨름하니 둘의 힘이 같거늘 태자가 둘을 잡아 함께 굴려 넘어뜨렸다.

이 내용은 한문본 저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석가씨보(集藝歷試迹第四經)〉에는 한 코끼리가 문에 있자 조달은 머리를 잡아 땅에 내치고 난타는 발로 차서 길 곁에다 밀어뜨려 놓았는데, 태자는 손으로 성 밖으로 던졌다가 다시 잡아 땅에 내려놓아 고통이 없게 하였다(有象當門調達搏頭蹙地難陁足挑路側 太子手擲城外還接著地 不令苦痛)고 한다. 한편 '석가보'는 조금 다른데 조달이 코끼리를 던져 죽었는데 난타가 길 옆으로 옮겼고 태자는 썩는 냄새가 나서 성 밖으로 던져 놓았다(調達右手牽象左手撲殺 難陁出城門卽牽移路側 菩薩出城曰是象身大臭熏城內卽右掌接摘置城外)고 하였다. 〈석보상절〉은 두 저본을 취합해 이와 같은 본문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여기서 조달은 '제바달다'라고 하는데 'devadatta'의 음사이다. 곡반왕의 아들로 붓다의 사촌 동생이다. 출가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으나 붓다에게 승단을 물려줄 것을 청하여 거절당하자 500여 명의 비구를 규합하여 승단을 이탈한다. 여러 번 붓다를 살해하려다 실패하는 캐릭터이다.

그만큼 조달은 한편으로 싯달타와 자웅을 겨루는 꽤 능력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다. 당시의 코끼리라고 해서 작지는 않았을 터인데 조달은 코끼리를 거의 강아지 다루듯이 땅에 메친다.

또 다른 경쟁자 난타는 누구인가. 정반왕과 이모 대애도(마하파사파제) 사이에서 낳은 이복동생이다. 'nanda'의 음사이고 환희(歡喜)·가락(嘉樂)이라 의역한다.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한 후 고향에 왔을 때 출가한다. 청년시절의 그는 조달과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땅에 내친 코끼리를 공처럼 올려친다.

이미 싯달타 태자의 학문 실력은 64종의 책을 섭렵하여 고작 두 권을 가르치려던 스승 밀다라를 난처하게 만든 전력으로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무예 실력은 여기서 비로소 검증된다. 태자는 코끼리로 그야말로 흠런을 친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떨어질 코끼리를 달려가 안전하게 받아 고통스럽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자비심까지 한 방에 보여준다. 게임 오버.

그리고 다음 차례인 힘을 겨루는 개인 상대의 씨름은 이미 코끼리 시합에서 결판난 것이다. 두 사람의 힘을 합해도 태자에게는 어림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 내용을 〈월인천강지곡〉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삼십구장〈월인15ㄱ〉

난타와 조달은 코끼리를 올려 차며 굴려 당겨

두 사람의 힘이 다름이 없더니

태자는 혼자 코끼리를 성 너머 쳐서 받으시고

두 사람의 힘을 함께 이기시니

지식 대결

대신 염광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팔만 가지 재주를 부리는데 태자에게는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큰 신하라고 풀이한 대신 염광과는 어떤 내용으로 팔만 가지 재주 대결을 한 것인가.

〈석가보〉에 '염광'이 나온다. '대신 염광(炎光)이 산술(算術)에 제일이어서 산술을 말해 보았으나 그 역시 태자에게 미칠 수 없었다. 수목과 약초며 많은 물의 물방울 수효까지도 낱낱이 알고 있었고, 저포(樗蒲)·육박(六博)·천문·지리며 8만의 기이한 기술까지 모두 외어 알았지만 보살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大臣炎光 算術第一 言談算術 亦不能及樹木藥草衆水滴數一一可 知樗蒱六博天文地理八萬異術一切諳會不及菩薩)'고 한다.

> 이상형 '구이'를 배필로 맞으려
> 왕족·귀족과 역량 겨루기 나서
> 화살 하나로 28개 북들 꿰뚫어
> 무예·지식 등서 경쟁자들 압도

'석가보'에서는 싯달타 태자를 '보살'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수목과 약초, 천문, 지리 등 우주 만물에 대한 열거에서 당시의 지식세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포'는 일종의 윷이나 주사위 놀이와 비슷하고 '육박'은 바둑과 비슷하다고 전하는 오래 된 게임의 역사도 엿 볼 수 있다. 〈석보상절〉이라는 책은 당시의 백과전서파와 같은 팔만가지 학문분야까지 중중무진하게 지식의 인드라망을 펼쳐 나간다.

활쏘기 시합

왕이 석가족을 데리고 또 활쏘기를 시험하셨다.

그 동산에 금북, 은북, 돌북, 쇠북이 각각 일곱 개씩 있었는데 조달이와 난타가 먼저 쏘니 각각 세 개씩 꿰뚫었다. 태자가 활을 당기시니 활이 꺾어지거늘 태자가 물으셨다. "나에게 맞는 화살이 있습니까."

왕이 이르셨다. "우리 조상께서 쏘시던 화살이 갖추 있되 그 활을 이겨 쏠 사람이 없으니 가져오라."

석가족들이 그 활을 이겨 당길 사람이 없었는데 태자가 손으로 눌러 당기니 활시위를 타는 소리가 성 안에 다 들렸다.

태자가 화살을 활시위에 메겨 쏘시니 그 화살이 스물여덟 북을 다 꿰어 땅을 꿰뚫고 가서 철위산에 박히니 삼천세계가 진동하였다.

세 번째는 활쏘기 시합으로 겨루도록 하였다. 〈석보상절〉에서는 '활쏘기를 받더시니'로 되어 있는데 〈석가보〉에서는 '다시 활쏘기를 시험하고자 하였다(王及釋種 更欲試射)'로 쓰여있다. 불교 전통강원에서 쓰이는 '강을 바치다'라는 말이 있다. '배운 글을 스승이나 시관 또는 웃어른 앞에서 외어 올리다'라는 뜻이다. '강을 받다'는 '선생이 자기가 듣는 앞에서 글을 외어 바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 '활쏘기를 받다'라는 말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600년 전에 쓰던 말을 하나하나 음미하고 되새겨보는 작업이 〈석보상절〉을 읽는 또 하나의 묘미이다.

'조상(祖上)'의 풀이도 '조(祖)'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윗분들을 무수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이른 말'이라고 정의한다. 15세기 주석이 새삼 신선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그 무수한 할아버지들의 자손이었던 것이다.

조달과 난타의 실력도 보통 사람으로선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경지이다. 그러나 태자는 신의 경지이므로 애초에 그 누구도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28개의 북을 꿰뚫고 땅을 뚫고 철위산을 관통해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해야 진정한 승자인 것을.

불교의 세계관에서 '철위산'은 수미산이 중심인 세상에서 그 주위를 9산8해가 둘러싸고 있는데 9번째 맨 바깥쪽 산이다.

사십장

조달과 난타는 제 분수를 저리 모르므로 둘이 쏜 화살이 북 세 개만 꿰뚫으니

태자 신력이 이리 세시므로 한 번 쏘신 화살이 네 일곱(28) 북을 꿰뚫으니

스물여덟을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운문의 맛을 살려 '네 개의 일곱'이라는 '네 일곱'이란 표현을 썼다. 마치 '이팔청춘'하듯이 말이다.

천제석이 그 화살을 빼어 도리천에 가서 탑을 세우고 공양하였다. 화살이 들어 있던 구멍에서 샘물이 나와 우물이 되니 맛이 단술과 같았는데 먹으면 병이 다 좋아졌다.

천제석은 제석천이다. 석제환인다라(釋提桓因陀羅)·석가제바인다라(釋迦提婆因陀羅)라고 쓰던 것을 줄여 제석천이라 하였다. 도리천(忉利天)에 주석하는데 수미산(須彌山) 정상에 있는 서른세번째 하늘로 사천왕(四天王)과 주위의 32천왕(天王)을 통솔한다. 그 제석천이 주석하는 도리천에 가서 화살을 모셔다가 탑을 만들었는데 이 탑은 천상의 네 탑 가운데 하나이다. 찾아보니 〈경률이상〉 권6에 도리천 동서남북에 붓다의 머리카락, 발우, 손발톱, 어금니를 모신 탑이 있다고 하는데 화살은 어디에 두었을까. 〈대당서역기〉 권6에는 화살샘(箭泉)이 성문 남쪽에 탑과 샘이 있다고 하였다. 화살을 뺀 곳에서는 만병통치의 샘물이 나왔다니 싯달타태자의 기량은 모름지기 중생구제를 위한 하해와 같은 자비로 귀결된다.

사십일장

땅에 화살이 꿰뚫거늘 단술샘(醴泉)이 솟아 나와 중생을 구제하시더니

철위산에 화살이 박히거늘 제석천이 하늘탑(天上塔)에 간직해 길이 세상에 전해지니

이렇게 만천하에 태자의 신력을 보이고 드디어 다음 이야기에서 태자는 구이와 결혼을 하게 된다. 신혼도 잠시, 그 유명한 '생로병사'의 사문유관이 시작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